

## 第67次 國際齒科研究學會 (IADR) 總會에 다녀와서

國際齒科研究學會 韓國支部會 會長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教授

梁 源 植

금년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Ireland의 수도 Dublin에서 개최되었던 제 67차 국제치과연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지부회를 대표해서 필자를 위시하여 직전회장인 이종훈교수, 총무이사 정종평교수, councilor인 이기수교수 및 김철수선생등 5명이 6월25일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런던을 경유 약 23시간만에 Dublin 공항에 도착하여 숙소인 Montrose Hotel에 여장을 풀었으며, 최선진 교수와는 다음날 학술대회장에서 합류하였다. 우선 국제치과연구학회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국제치과연구학회라는 학회의 전체명칭보다는 약칭 IADR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학회는 1920년 미국 뉴욕에서 창립되어 현재까지 매년 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있다. 이 총회 및 학술대회는 북미주이외의 나라에서는 3년에 한번씩 개최하며 현재까지는 동양권의 경우 15년에 한번 IADR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할 기회를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30년 먼저 생긴 국제치과연구학회 일본부회(Japanese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약칭 JADR)도 1980년에 한번 Osaka에서 IADR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제치과연구학회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6개 지부로 구성되 있는데 미국지부, 캐나다지부, 멕시코지부, 아르헨티나지부, 스칸디나비아지부, 유럽대륙지부, 영국지부, 아일랜드지부, 이스라엘지부, 남아연방지부, 오스트레일리아

와 뉴질랜드지부, 이란지부, 이집트지부, 일본지부, 동남아지부, 한국지부이다. 전세계에 걸쳐 총 8,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미국지부가 약 4,500명, 일본지부가 약 1,000명이고 한국지부는 20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회원의 구성을 보면 치과의사, 비치과의사로서 치의학 학문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나라든지 기초, 임상을 망라한 치과대학교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거의 IADR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의 대학원 학생들도 대개 가입하고 있는데, 이 IADR 총회 및 학술대회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첨단적 치의학연구의 발표장이며, 최신의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가장 수준높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이 IADR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학회학술잡지인 Journal of Dental Research는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적 연구논문이 게재되는 권위있는 학술잡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IADR 학술대회에서는 기초, 임상에 걸쳐 18개의 연구분과를 두어 구연 및 포스터를 통해서 훌륭한 연구결과가 매년 발표 되고 있으며, 치의학의 Nobel상이라고 부르는 Hatton Award를 위시한 많은 수상종목이 있다.

18개 연구분과는 치아우식, 두개안면 생물, 치과 재료, 행동 과학, 보건업무 연구, 진단체계, 실험병리, 노인치과연구, 매식, 미생물 면역, 무기질화 조직, 신경과학 및 악관절, 구강 악안면외과, 치주연구, 약리약물치료 및 독물,

치수생물, 타액연구, 보철학 연구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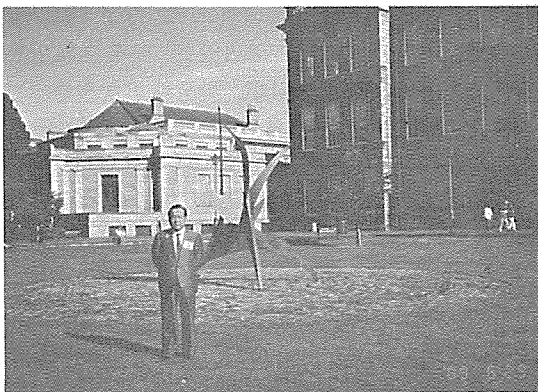
한국지부는 필연적인 시대적요구에 부응해서 1971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회장에 김주환박사를 선출하였으며 1975년에는 공직치과 의사회와 공동주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37연제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그 후 IADR 본부산하의 정식지부로 가입하기 위해 회장단 및 임원진의 부단한 노력으로 드디어 1982년 제61차 IADR 뉴올리언스 대회에서 정식지부로 인준을 받게 되었으며, 인준받기까지 11년의 세월이 걸렸고 당시한국지부장은 정동균교수였다. 인준받은 해인 1982년 12월에 개최된 한국지부회의 학술대회를 제 1차 IADR Korean Division의 학술대회로 하여 금년 1월의 학술대회가 제7차학술대회가 된다.

당시 31명으로 시작한 회원수도 6년만에 급격히 증가하여 200명을 넘게 되었고 1982년 당시 10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던 시절에 비해 1989년 1월에 개최된 제 7 차 학술대회에서는 53편이라는 많은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초대회장이신 김주환박사의 회사로 제정된 신인학술상을 만들어 매년 시상하게 되어 젊은 치의학자들의 연구의욕 고취에 기여하게 되었다.

제67차 IADR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된 장소는 인구 300만의 나라 Eire 공화국(Ireland)의 수도 Dublin시내의 막 방학이 시

작된 Trinity College의 강의실, 강당, 체육관 등이 학술대회 발표장소로 사용되었다. 6월27일 오전 9시에 시작된 Presidents' Breakfast 회의에서 IADR 본부회장 Dr.W.D. McHugh의 사회로 IADR 운영전반에 걸친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운영방안 논의, 학회 영여금배분, 학회지발간, 각 지부의 논문초록 게재등에 관한 토의 및 각 지부의 활동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 오후 1시30분에 시작된 Council meeting에 필자와 총무 정중평교수 및 councilor 이기수교수가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IADR 운영전반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였고, 익일인 6월28일은 오전 8시부터 Council meeting이 속개되었으며, 특기할 사항은 1995년도 IADR 총회 및 학술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한 우리 임원진의 피땀어린 노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단 한표차로 유치경쟁에서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IADR 총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부각되고 비로서 당당히 우리한국이 IADR 회원국의 실력자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된 것이며, IADR 총회 및 학술대회를 동양권에는 15년에 한번씩 주계되 있는 전례를 깨고 2001년에 서울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느냐는 본부의 권유로 이를 수락하기로 했다.

이번의 67차 IADR 학술대회에는 1,266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양적인 면으로 보면,



<제 67차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린 Dublin의 Trinity College 교정에서의 양원식 회장>



<제 67차 IADR 총회 개최식 광경 본부 회장단과 각국의 지부회 회장들>



<IADR 학술대회 강연회장인 Trinity College의 강의실 앞에서 (왼쪽부터 : 이기수 교수, 양원식 교수, 이종훈 교수, 김철수 선생)>



<제 67차 IADR 총회장소인 National Concert Hall 앞에서의 한국대표단 (왼쪽부터 : 정중평 교수, 이종훈 교수, 양원식 교수, 이기수 교수, 김철수 선생)>



<Poster 전시장에서의 한국 대표단 (왼쪽부터 : 정중평 교수, 이종훈 교수, 양원식 교수, 이기수 교수, 김철수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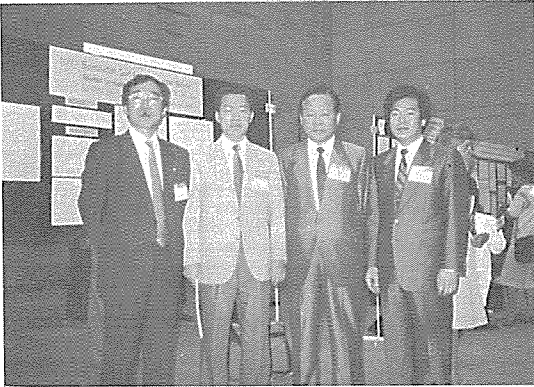


<등록처에서 (왼쪽부터 : 김철수 선생, 양원식 교수, Ohio대 교정학교실의 Davidovich 교수, 이기수 교수)>

미국이 573편, 영국이 159편, 일본이 137편, 캐나다 80편, 네델란드 54편, 스웨덴 31편, 노르웨이 30편, 서독 28편, 아일랜드 27편, 프랑스 26편등이며 한국은 3편뿐이었는데, 이종훈 교수의 poster 「Influences of Capsaicinoids on Digastric EMG and Neural Conduction」 과 정중평교수의 구연 「Monitoring the Factors of Disease Progression in Early Juvenile Periodontitis」 및 최선진교수의 poster 「Scintillation Count Rate of (3319H)-labeled Bacteria Adsorbed to Hydroxypapatite Beads」였다.

논문 발표는 구연과 poster로 되어있는데,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보아 깊이있는 연

구, 특히 생명, 유전공학적인 연구방법, 면역학,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신경생리학,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신소재 개발을 통한 치과재료학 연구, 치과약리학을 통한 새로운 약의 개발, LASER의 연구, 보철, 구강외과, 교정등의 임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등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9개연제의 symposium에 46명의 연자가 발표했는데, AIDS와 구강, 복지국가에서의 치과진료 봉사의 변천, 치근표면의 caries, 골과 치아의 genomes등이 다루어졌고, Satellite symposium으로 bruxism과 정상적 저작기능, 치과재료의 개발과 실제환자에 적용시의 문제점등 임상에 관련된 분야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



〈Poster 전시장에서 (왼쪽부터: 이종훈 교수, 최선진 교수, 양원식 교수, 김철수 선생)〉

고, 각 연구분과별 모임과 연구분과별 연구발표도 있었다. 한마디로 과연 IADR 학술대회는 치의학 연구의 Olympic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일본에서 약 400명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6명의 참가자 밖에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 IADR 세계총회 및 학술대회를 각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리는 것은 이 학회 개최국은 세계적인 석학들과 첨단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서 치의학의 기초, 임상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분발하게 되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IADR 세계총회를 유

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의 내실을 기하는 준비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주최국이 되면 주최국의 체면을 보아서도 세계 수준의 우리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되어야 하겠는데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현황을 보면 참으로 많은 우려가 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자면 1988년 12월 현재 29개 치과대학에 전임강사 이상의 기초교수 수가 714명,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 수는 1,339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치과대학 기초교수의 현황을 보면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기초교수가 전국 10개 치과대학을 다 합해서 39명인데, 그중 서울대학교가 15명의 기초교수를 확보하고 있고, 타교는 2~3명씩의 전임 기초교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임상교수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 수가 162명이다. 일본은 1개 치과대학의 기초교수 수가 평균 약 2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기초교수 수는 1개 치과대학에 평균 4명으로서 전국 치과대학의 각 전공교실에 1명씩의 기초교수라도 빨리 충원하는 일이 화급한 급선무라 하겠다. 연구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훌륭한 많은 연구업적을 기대하겠는가! 연구의 성과는 주지하는 바와같이 많은 연구인력이 다년간 각고의 노력끝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식의 점진적 축적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치과대학 경영자들의 각성과 교수자신들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나라 치의학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CHOI'S DENTAL LAB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승인동 1081

923-6671 · 923-2998